

## 강남 성모 병원 호스피스



### 1. 호스피스 태동시기(가톨릭 중앙 의료원)

가톨릭 중앙 의료원 산하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직원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봉사활동을 실천하면서도 호스피스 활동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호스피스는 예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인간을 대하셨음과 같이, 연민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행위이다. 호스피스는 가톨릭 대학에서 의과, 간호학과 학생 중심으로 1981년 8월부터 시작되었고, 강남성모병원에서는 1982년 4월부터 내과 병동 간호사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같은해 12월에는 원목실 주관으로 의사, 간호사, 원목자, 자원봉사자가 팀을 이루어 정기적인 교육과 활동을 펴 오다가, 1984년 부터는 간호과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당시에 호스피스 간호사들은 종양학 연구와 호스피스 사례 발표 등을 통한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으며, 이때 이경식 교수도(내과 암전문의)도 호스피스 요원들에게 종양학 등에 대한 교육을 맡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 각 기관의 호스피스 발전을 위하여, 원목실장 신부님 및 보직을 맡은 신부님과 교수진들이 미국내 여러곳의 호스피스를 견학 사찰하였다.

1986년 11월 2일에는 「가톨릭 중앙 의료원의 이념은 치유자신 그리스도를 우리안에 재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데 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숭고한 사명감을 지닌 의료인을 양성하고 의학을 연구발전시키며 사랑에 찬 의료봉사를 베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있다. …… 중략 …… 또한 죽음을 맞는 이들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인간다운 품위를 지니도록 돕는다」는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이념이 의료원 재단이사장 이신 김수환 추기경에 의하여 공포되었다.

이러한 의료원 이념에 따른 호스피스와 필요성에 의하여 1987년 3월 의료원 직할 병원인 여의도 성모병원과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과 신설 및 전문교육을 통해 양성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2. 호스피스과 신설 및 병동개원

호스피스과에는 과장수녀 1명, 서기보 1명이 자원봉사자들과 한팀이 되어 강남성모병원 환자 뿐만 아니라 가정간호 활동까지 하며 서울에서 안성및 문경지방까지 필요한 곳 어디나 호스피스 대상자면 방문하여 보람을 갖게 되었다.

1988년에는 본 병원의 서병동 및 응급병동 신축에 따라서, 응급병동 3층에 호스피스 병동(1인실 2병상, 4인실 2병상 등 총 10병상)이 국내 최초로 탄생되었고, 병실 밖으로는 푸르른 자연과 하늘, 맑은 공기, 성모상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장소에 간호사 처치실, 휴게실, 면담실, 자원봉사자실, 기도실, 임종방, 옥상, 호스피스과 사무실 등이 구비되어 10월 5일 개원하게 되었다.

현재 병실 가동률은 95%, 전체평균 재원기간은 25.8일, 입원환자중 72.8%가 가톨릭, 개신교 신자이다. 또한 타종교인도 수용하며, 입원후 영세 및 대세를 받으시고 영적 기쁨안에서 선종하시는 분들이 많다.

입원 평균 대기일수는 3.7일(1992년 2월말 통계)이다. 하느님께서 원하신 주님의 섭리가 환자들에게 새로이 이루어지는 지상의 작은 천국을 미리 맛보고 있는 병동이라 할 수 있다.

## 3. 자원봉사자 활동

개원초부터 원목실에 나오는 일반 봉사자들중 호스피스에 관심을 갖는 봉사자들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1987년 호스피스과의 독립과 더불어, 호스피스 봉사자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484명이고 5년간, 매년마다 교육에서 선발된 144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다. 현재 54명이 월, 수, 금요일로 팀으로 격주간 모임을 갖고 봉사내용의 활동은 다양하며 정기적인 월례교육과 각종 모임, 피정, 야유회, 강의, 사례발표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호스피스 대상자는 많으나 힘이 못 미치는 것에 대하여 봉사자들 자신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자원봉사자는 팀장, 부팀장, 각조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 4. 호스피스의 지향

호스피스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가장 필요한 의료봉사이다.

더욱이 외롭고, 병들고, 고통에 짓눌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갖는것이 기본 크리스찬 정신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말기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 고독에 동참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말기환자의 남은 생애가 질적인 삶이 되기 위하여는 통증과 증상관리를 완화시켜주는 치료가 1차적 돌봄이라고 생각된다.

환자가 신체적으로 편안함을 느낄때 심리적, 영적 요구에 동참하여 경감시키도록 팀웍으로 지지하는 사랑의 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하다.

또한 호스피스는 환자와 함께 고통을 겪는 가족도 포함하여 일체를 이루는 프로그램이다.

호스피스 병동은 가족적 분위기를 느끼도록 조성하여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가 되도록 많은 지지모임을 갖는다.

분야별 모임, 일반병동 활동간호사 모임, 자원봉사자 모임, 사별가족 모임, 가족지지 모임 등 호스피스 대상자들이 이 준비된 보살핌과 혜택을 많이 받기를 바라며, 호스피스는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쁘게 계속사업으로 받아 주시리라 믿는다.

## 5. 호스피스 병동 입원조건

\* 누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수 있나요?

- 임종이 6개월 이내로 예견되는 말기환자  
(임종만을 위하여 입원시키지는 않습니다.)
-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 요법을 시행했으나, 더 이상의 의료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
- 동통완화, 증상관리를 주 목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할 환자.
- 입원 당시 의식이 뚜렷하고, 의사 소통이 가능한 환자

위 치 :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우 편 번 호 : 137-040

대 표 전 화 : 590-1114

호스피스과 : 590-1690~2

◎ 93년도 회비를 아직 내지 않으신 분은 아래 은행계좌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004-01-0508-370 예금주 : 가호협